

아이들 통학길부터 위험시설까지 생활 속 위험, 더욱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

- 어린이 등하굣길 CCTV 설치, 재난위험시설 정비를 위해 재난특교세 150억 원 지원
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와 재난위험시설 정비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지원한다.
- 먼저, 어린이가 주로 다니는 학교 주변 교차로 등 303개소를 대상으로, 실시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CCTV 설치 비용 50억 원을 지원한다.
 - 이는 ‘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불식되도록 어린이 약취·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’는 대통령 지시(9.11.)에 따라,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‘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 대책’(11.11.) 후속 조치이다.
- 또한,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재난위험시설(30개소) 정비를 위해 서도 100억 원을 지원한다.
 - 지원 대상은 올해 실시한 ‘집중안전점검*’(4~6월) 결과, 균열·부식 등 위험 징후가 발견된 교량, 낙석·붕괴 우려가 높은 급경사지 등이다.
 - * 재난 예방 및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매년 안전 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점검 실시
- 윤호중 장관은 “정부는 어린이 등하굣길부터 교량·급경사지와 같은 시설물에 이르기까지, 일상 속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이 없도록 재난 예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라고 강조했다.

담당 부서 (특별교부세)	자연재난실	책임자	과 장	이응범 (044-205-5110)
	재난관리정책과	담당자	서기관	현종일 (044-205-5125)